

담양군, 내년부터 ‘행복택시’ 마을 확대한다

자동차없는 마을 주민 편리 1인당 월 6차례 이용 가능

담양군이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대상마을과 사업자를 확대키로 했다.

17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행복택시 운행 관련 설명회와 대상마을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거리 기준을 마을회관에서 인근 버스승강장까지 0.5km에서 0.4km로 완화했으며 7개 마을 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담양군 행복택시는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가운데 버스승강장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에 사는 주민 중 자동차가 없는 65세 이상 주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택시를 지원하

는 제도다.

이용요금은 가까운 승강장까지는 100원, 읍·면 소재지나 가까운 전통신장까지는 1000원이며 한 사람당 월 6차례(동일 세대 대상자 2명일 경우 총 8차례) 이용할 수 있다.

담양군은 이달 중 각 읍·면에서 대상마을 주민신청을 받고 택시사업자 신청과 협약 체결 등 시행 전 사전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담양군은 2016년 27개 마을 246명, 2017년 36개 마을 403명, 2018년 49개 마을 691명, 2021년 76개 마을 748명 등 행복택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확대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중교통 이용객 서비스를 향상해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신재현 기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곡성군 2년연속 대상 수상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마을 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000개 마을을 선정해 매년 500만 원씩 3년간 1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평가는 △으뜸마을 참여도 △추진단 운영실적 △중점사업 예산 비율 등의 정량평가와 △이미지 평가 우수사례지 평가인 정성평가로 이뤄졌다. 선발된 6개 우수시군을 대상으로 최종발표심사를 거쳐 시상 등급이 결정됐고 곡성군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곡성=김대영 기자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 함평군, 취약계층에 27톤 지원

함평군이 겨울철 한파 대비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사랑의 땀감 나누기’를 실시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 후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해 2006년부터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군은 11월 한달간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공공 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 땀감을 마련했으며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26가구에 27톤을 지원했다.

땀감 지원은 숲가꾸기 부산물 자원을 재활용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외에도 가연물질을 사전에 제거해 산불 등 산림 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고생하시는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단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이번 사랑의 땀감 행사를 통해 취약계층 분들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치매 예방 봉사활동 펼쳐 화순군자원봉사센터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4일 치매 예방 교구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치매 예방 교구 만들기’ 활동은 고령화 시대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치매 예방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이다. 편백 질문젠가와 칠교, 친숙한 이미지의 효도 퍼즐 등 손의 소근육을 사용함으로써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 및 지연 효과가 있는 인지놀이 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화순군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직접 참여해 치매 예방을 위한 교구를 완성했고, 만들어진 교구는 치매안심센터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다.

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는 “교구를 직접 사용해 보니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치매 예방 교구를 만드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행복한 삶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함평군이 겨울철 한파 대비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사랑의 땀감 나누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평군 제공

곡성 ‘내가 만난 문화유산 사업’ 명예의 전당 등재

3년 연속 우수사업에 선정 도깨비 주제 포럼 등 진행

곡성군이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유산 사업’이 3년 연속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해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다.

곡성군은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유산 사업’이 2023년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165개 지자체 중 우수기관 11개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또 3년 연속 우수사업에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곡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마천목 장군의 도깨비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와 포럼을 진행했으며 사당과 예장묘를 지정 문화재로 등록한 뒤 도깨비학 회도 창립했다.

5월부터 12월까지 마천목사당, 도깨비숲길, 섬진강 도깨비마을에서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재’를 운영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동화책과 인형극을 개발해 문화유산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에게 선보



곡성군이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가 만난 첫 번째 문화유산 사업’이 3년 연속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해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다.

곡성군 제공

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도 도깨비 굿판, 도깨비 세레나데, 도깨비 난장판, 요들, 인형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도깨비잔치와 1박 2일 행사, 도깨비를 주제로 한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문화재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람객에게 선보여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다”며 “내년에도 지역의 문화재가 전국에 알려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함평군, 전남도 주관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함평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2023년 규제개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건의 과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현장 중심 지방규제 운영 등 6개 분야, 9개 평가지표를 종합

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 우수 2, 장려 6개 시·군을 선정했다.

함평군은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고 선제적 규제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으며, 43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를 해결하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답을 찾는 ‘찾아가

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직자 대상 지난달 규제개혁 워크숍을 실시해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와 관심을 높였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장성병원, 병상 증축 개선 군 거점병원으로 도약



의료법인 행복나눔의료재단 장성병원(이사장 고명숙)이 45억원을 투입해 응급실 구축 및 병상 증축 등 의료환경을 개선했다.

지난 15일 장성병원 준공식에는 김한중 군수,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증축·준공한 시설은 연면적 1864.62㎡(약 560평) 규모다. 1층 종합검진실과 응급실, 2층~5층(증설 78개 241병상)을 증축하는 등 환자편의를 위한 치료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증축으로 장성병원에는 의사 11명(2명 증가), 간호인력 40명(2명 증가), 의료기사 등 총 101명의 의료 인력이 배치됐다.

장성병원은 증축 건물 5층에 ‘건강교육 전문시설’을 새롭게 갖췄다. 고혈압, 당뇨병, 암, 치매, 정신질환 등 조기발견 조기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장성=유병현 기자

영광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1만2332건 19억원

영광군은 2기분 자동차세 1만2332건 19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12월분은 12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하여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